

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	보고서명	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
	문의	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(02-3771-0850, hjkang326@kcmi.re.kr)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822, bjang@kcmi.re.kr)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25, hcjung@kcmi.re.kr)

-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위협 및 유예를 반복하면서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
 - 미국은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수출 대상국으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등이 고강도 관세 위협에 노출
 - 미국의 방침이 계속 변화하면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중요한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
 - 관세의 직접 효과와 함께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장기 지속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

- 미국의 품목별(자동차 및 철강: 25%) 및 보편 관세(10%)로 국내 GDP는 약 0.5%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
 - 품목별 GDP 파급효과는 운송장비 ▼0.30%, 컴퓨터·전자·광학기기 ▼0.04%, 1차 금속제품 ▼0.03% 등
 - 한편, 현 대중 관세('24년말 약 20%→'25년 30%) 하에서 「우리나라→중국→미국」의 수출 경로를 통한 국내 GDP에 대한 영향은 약 ▼0.02%로 크지 않은 편

-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GDP에 관세와 유사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
 - 실증분석 결과,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으로 미국 및 한국 GDP는 유의하게 감소
 - 트럼프 1기(2018.1/4~19.4/4분기) 당시,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GDP가 평균 ▼0.2% 감소
 - 불확실성이 2025년 1분기 수준으로 상향 유지될 경우 2025년 4분기까지 하향 안정되는 경우에 비해 GDP가 ▼0.5%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종합하면,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도 상당
 -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 효과로 국내 성장률이 약 ▼1%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, 이 중 무역정책 불확실성 효과는 관세의 직접 효과와 유사한 수준

- 이상을 고려할 때,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 원만한 무역협상 타결이 이상적이며 적극적 거시안정화 정책으로 관세와 불확실성의 영향을 완충하는 것이 필요
 -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차단하는 한편, 협상 시 여타국 대비 경쟁력 있는 관세율 확보가 중요
 - 2015년 제조업 불황기보다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물 경기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 필요성이 높은 상황